


 오늘의
게시판

이주여성을 위한 나눔터 카페 '징검다리' 개소식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무등파크 상가 3층



<1일>

▲광주·전남경총 금요조찬연수회=오전 7시 광주 무등파크 호텔. 이은상(민족컨설팅그룹 원장)씨가 '변화와 혁신의 시대 그리고 나'에 대해 강연.

▲제 6회 전남 농아인 체육대회=오전 10시 목포체육관.

▲(사)이주가족복지회·광주이주여성지원상담센터 개원 1주년 기념식 및 이주여성을 위한 나눔터 카페 '징검다리' 개소식=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화정동 무등파크 상가 3층.

▲민주평통 전남지역 대표 자문위원 워크숍=오후 2시 목포신안비치호텔.

▲제 122회 강진산강좌=오후 3시 강진군 문화회관. 정환답 국제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 상임대표가 '부패의 고질을 해결하여 한국민의 자

존심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강연.

▲제 501회 21세기 장성아카데미=오후 4시30분 장성군청 대회의실. 김주성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현장경영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

▲산림박물관 건립 보고회=오후 2시 완도수목원.

▲3·3·5 워킹클럽 폐회식=오전 10시 광주시 남구 건강증진센터.

<2일>
▲제 2회 전남도지사기 생활체육 조기축구대회=오전 10시 완도군 종합운동장. 청소년·장년부 등 44개팀 1천여명 참여. 3일까지.

▲제 3회 난도예술여행 서화작품 토요경매=오전 11시 진도군 운림산방 내 역사전시관. 한국화 16점·서예 20점·문인화 14점 등 모두 50점 경매.

▲전주시청 어진원회 문화탐방=오전 10시부터 죽녹원·가마골 생태공원·소쇄원·가사문화관 등 탐방.

▲'하버드생 첼리스트'고봉인 독주회=2일(토) 오후 2시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 베토벤의 '소나타 5번 D장조', 라흐마니노프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G장조 Op.19', 마纽엘 데 파아의 '스페인 민요 모음곡' 등 연주.

▲김향순 (사)학운국악진흥회 이사장의 판소리 '심청가·원왕 백회회'=2일(토) 오후 2시 광주빛고을국악전시관.

▲제 325회 토요민속여행=2일(토) 오후 2시 진도 향토문화회관. '여유롭게 맞이하는 가을'을 주제로, 대불대 앉은반 사물놀이·남도민요·판소리·북춤 등 공연.

▲토요 상설 문화공연=2일(토) 오후 4시 담양 군 죽녹원 야외무대. 풍물과 '얼쑤' 초청공연.

▲윤근 교수 개인전=5일까지
 전시 지 목포문화예술회관. 자연에서 얻은 곤충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작품 25점 전시.

▲자산갤러리 청년작가 초대전 '박형규전'=20일까지 지산갤러리.

▲한국화가 고봉식·천석 공동작품전=3일까지 서구문화센터 갤러리.

▲그룹초대전 21세기 정신조각회전=1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분관.


 역사속의 오늘

▲루이 14세 세상 떠남(1715)

▲독일,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일어남(1939)

▲KAL 007기, 사할린 근해 상공에서 소련 공군 기의 미사일에 격추당함, 269명 전원 사망(1983)

27. 사행성 성인 오락기를 둘러싼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검찰은 성인용 오락기 뿐 아니라 경품 용 상품권 등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슬롯머신처럼 화면에 문어·조개 등의 그림이 돌아가다가 멈추면서 배열에 따라 점수를 얻는 릴게임의 일종인 시행 성인인오락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바다이야기 ②횃집이야기
③종국집 이야기 ④문어 이야기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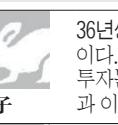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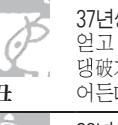
보내실 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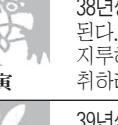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 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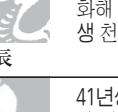
9월 1일(월 7월 9일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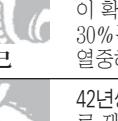
 36년생 仲人の 협조가 새롭게 나타난 견이니 매사에 성공하는 형상이다. 49년생 자신 있게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60년생 투자는 미루나. 72년생 모든 일에 신중 하라. 84년생 불연이면 애인과 이별로. 행운의 숫자 : 11, 38

 37년생 부부간의 의견다툼이 있다. 49년생 오랜만에 좋은 협조자를 얻고 급진한다. 61년생 흥이 변하여 길이 된다. 73년생 宦 財, 败財, 맹방과 우려된다. 85년생 모든 일에 신중함을 잊지 말아야 순이 좋다. 행운의 숫자 : 2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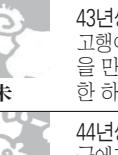
 38년생 직업과 재물에 불리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50년생 부부사이에 환신이 필요하다. 62년생 흥과 복이 교차하고 중증이나 기도하고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2, 34

 39년생 획기적인 자기노선에서 주변의 협조까지 얻으니 금상첨화로다. 51년생 현재의 위치에서 깊은 마음으로 자신의 발자취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 63년생 솔대축소 솔대 실리를 찾아온다. 75년생 오늘은 평안하다. 행운의 숫자 : 22, 32

 40년생 신고를 당하는 수도 있다. 52년생 처음부터 자진심을 버리고 화해 풀고 모색하라. 64년생 있는 것도 없을 듯이 조심하라. 76년생 천국이면 대화 대손을 불면하고 상처만 남으니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 2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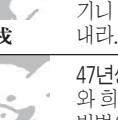
 41년생 물고기가 변해서 응이 되는 형상이다. 53년생 접чин적인 활동이 확실한 결과로 보일 수 있게 된다. 65년생 경쟁과 격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내용이다. 77년생 중정을 잊지 말고 자기 일에 열중하라. 행운의 숫자 : 18, 28

 42년생 희망의 진행은 계속된다. 54년생 문서를 쓰고 형상으로 제시가 순조롭다. 66년생 큰 계획으로 임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78년생 모든 일에 경이로운 진취가 있다. 행운의 숫자 : 14, 44

 43년생 미리서 신중한 체면을 유지하고 친절하게 살펴보라. 55년생 고행이 지나고 길운이 다가온다. 67년생 태인의 중상모략 사기 기만을 만날 우려가 많으니 조심이 절실히. 79년생 많은 조심이 필요 한 행운의 숫자 : 24, 16

 44년생 지난 과거에 엎매이지 않고 새로운 일을 취하라. 56년생 친구에게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라. 68년생 지난 문서는 버리고 새 문서를 얻는다. 80년생 좋은 음식은 이웃과 나누어 복을 나누어라. 행운의 숫자 : 17, 43

 45년생 외형축소가 내일 솔itude 접침을 하리. 57년생 서로로서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다. 69년생 내일을 위해서 인내함이 좋으리라. 81년생 행운의 숫자 : 0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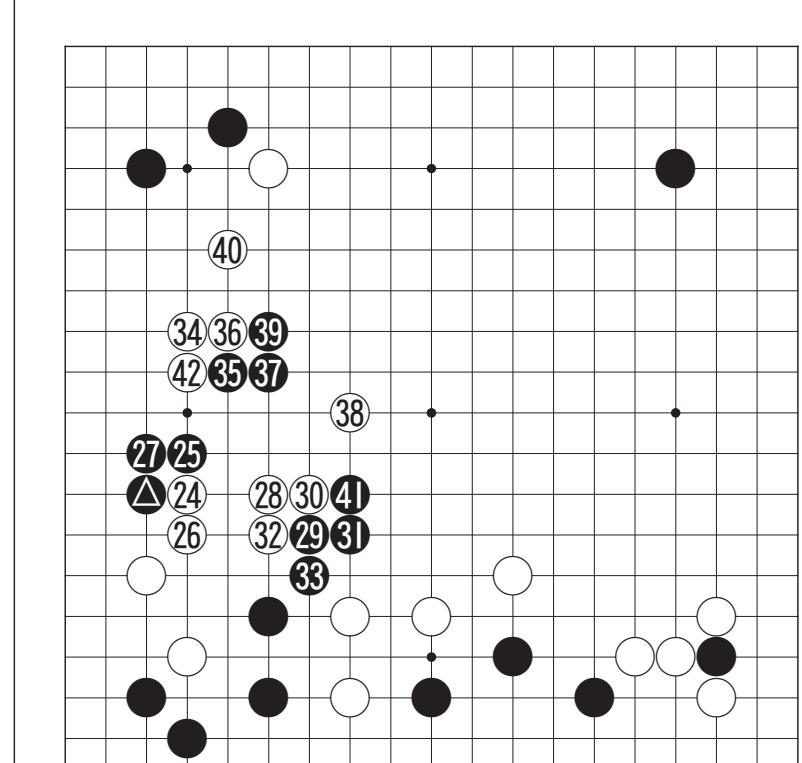
 46년생 생각하지 않은 협조자가 자래하니 적극성을 보여줘야 한다. 58년생 도둑이 예상되니 문단속을 잘하라. 70년생 마음의 변화가 생기니 기도하고 심신의 안정을 기하라. 82년생 오늘은 눈을 감고 지내리라. 행운의 숫자 : 02, 42

 47년생 침체 속에 실리로 있으니 실망 말고 진행하라. 59년생 용기와 힘으로 추진하면 데우다. 71년생 모든 외형은 가능한 방법으로 실리를 찾아서 축조해야 좋으리라. 83년생 오늘은 즐거워라. 행운의 숫자 : 23, 41

www.cafe.daum.net/sajoo114 ☎ 011-632-6121



지난달 28일 9kg을 감량한 김혜선이 날씬한 바니 걸로 변신한 모습을 공개했다.

제15회
光日盃
광주·전남 친정비행대회

'여행은 동행하라'

제3보(24~42)

白 허우석 5단
(광주광역시청A)黑 이강민 5단
(PCA생명)

<참고도>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전되어 버린 형국이다.
흑 ❶을 맞은 것이 너무 아프다. 허우석 5단은 이 수를 등한시 하다가 일기에 주도권을 빼앗기고 허둥대고 있다.

백 34는 일단은 이렇게 갈라놓고 볼 것이다. '흔자 여행은 피곤하다.

여행은 동행하라'는 격언처럼 좌변의 흑돌들과 함께 쫓고 쫓기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흑 41에 백 42로 받은 것이 재미있는 응수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순간의 방심으로 순식간에 공수가 역